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테클라 대순교자

루가 제1주일

성 크산티빠와 성 볼리크세니 수녀

제8조, 조과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B 226
- 사도경 : 갈라디아 4, 22-27 / 봉독서 580
- 복음경 : 루가 5, 1-11 / 122, B 6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테클라 사도 대등자 대순교자

유대인들이 안티오키아에서 성 사도 바울로와 성 사도 바르나바를 쫓아냈을 때 사도들은 이고이온으로 갔고 거기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사도행전 14:3) 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듣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는, 우리 교회가 9월 24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사도 대등자 테클라 대순교자도 있었습니다. 성 테클라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교부들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특별한 방법으로 여성의 세심한 감성으로, 복음 말씀의 설교를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여성들 중 한 명입니다.

성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의 모든 쾌락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향기를 풍겨 주를 기쁘게”(민수기 15:3) 해드리는 하나의 희생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

현대인들은 자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무정부 상태 그리고 면책이라고 답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의 의미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동물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사람이라면 코끼리가 땅에 박힌 작은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다면 이 나무 막대기는 아주 작아서 땅에 조금밖에는 박혀 있지 않을 거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나무도 한 번에 뽑아버리는 거대한 동물이 어떻게 그 작은 나무 막대기를 뽑아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작은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나무 막대기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어린 코끼리는 나무 막대기에서 벗어나려고 반복적으로 밀어보고 당겨보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코끼리의 힘에 비해 그 나무 막대기는 더 강해서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시도 끝에 어린 코끼리는 어느 순간 자신의 무력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끔찍한 현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을 것입니다.

서커스 공연장의 거대하고 강력한 코끼리는 자신이 아직도 그 나무 막대기에서 벗어나 힘이 없다고 여기며 안타깝게도 더 이상 그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그 기억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벗어나려고 시도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커스단의 이 코끼리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두어 버린 열정과 욕망, 의존성 등에 스스로 얽매이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자유를 찾을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우리는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라는 잘못된 기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발이 쇠사슬에 당겨지는 느낌을 받지만, 또 그 쇠사슬의 마찰음을 듣지만, 그때마다 나무 막대기를 보며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라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운명이 헤어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묶여있다는 끔찍하고도 거대한 오해와 거짓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서커스단’의 동물이 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입니다.

“나는 절대 해내지 못할 거야!”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필립비 4:13)라고 외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도들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은 읽고 공부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즉 내 힘만으로는 어렵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자유의 원천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



유진 이오네스코

수십 년 전에 이름난 루마니아계 프랑스인 극작가인 유진 이오네스코(1909-1994)가 처음으로 아토스 산을 방문하였다. 몇 년 뒤 그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신문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나는 정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25세에 처음으로 파리에서 살았다. 아토스 산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무엇보다도 정교회 안에서 수도 생활과 아토스 산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고백성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수도사제를 찾아갔다. 내가 무엇을 고백했던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한 젊은이의 혼한 죄였다. 내 고백을 듣고 나서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 네, 네. 신부님,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전 세례받은 정교 그리스도인입니다.

— 사랑하는 자녀여,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온전히 받아들입니까?

—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을 누군가 제게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저와 관련이 있으며, 제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부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만일 자네가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은 확고하며 변치 않는 다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오네스코는 신앙으로 돌아섰으며, 유명한 극작가로서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도 경건하고 깊은 신앙심을 지닌 정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당신이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신부님의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추상적 이론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격이신 분으로서 나의 창조주이여 구원자이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저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식적인 회개의 행위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교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추석 명절 추도식

오는 9월 24일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모든 선조들을 위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쫄리바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선조들을 위한 추도 예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들 축일
10월 3일 한국정교회 24인 수호 성인들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축일 예배가 거행됩니다. 각 지역 성당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축일 준비를 위해 꼭 수도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추석 명절 성찬예배, 추도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에 성찬

예배에 이어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15일 토요일에 다니엘 카르푸스 김이 (유아)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올바른 정교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가을 바자회

오는 10월 21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 축제’ 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불가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는 9월 29일(토)과 30일(일)에 서울 성당 느티나무 아래 바닥 데크 공사와 성막심 성당 내부 페인트칠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여하시어 우리 성당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미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9월 24일(월) 추석 명절 추도식(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월 26일(수) 성 요한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성 요한 복음사도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